

<http://dx.doi.org/10.17703/JCCT.2024.10.6.339>

JCCT 2024-11-43

## AI 관련 뉴스기사의 보도 프레임 분석

### Frame Analysis of News Reports on AI

최민음\*, 조은수\*\*

Mideum Choi\*, Cho Eunsoo\*\*

**요약** 이 연구는 언론이 인류의 일상을 혁신적으로 변화시킬 신기술인 AI 관련 사안을 대중에게 전달하는 방식을 보도 내용 프레임과 보도 방향 프레임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기사 제목과 기사 본문의 독립성이 강해지는 추이를 반영해 기사 제목의 프레임과 기사 본문의 프레임을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나아가 보도 내용 프레임에 따른 보도 방향 프레임의 차이, 그리고 보도 시기에 따른 보도 프레임의 차이를 교차분석을 바탕으로 검증함으로써 현재 언론의 모습을 진단하고 저널리즘의 가치 증진을 위해 언론이 기울여야 할 노력에 대해 제안하였다.

**주요어** : AI, 인공지능, 프레임 분석, 이익/손실 프레임, 저널리즘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how the media conveys issues related to AI, a new technology that is revolutionizing everyday life, by categorizing the news coverage into news content frames and profit and loss frames. Reflecting the trend of increasing independence between headlines and the body text of articles, the study separately analyzes the frames of headlines and the frames of the main content. Furthermore, by cross-analyzing the differences in direction frames according to content frames and the variations in coverage frames over different reporting periods, this research assesses the current state of the media. It also provides recommendations for the efforts that the media should make to enhance the value of journalism.

**Key words** : AI, Artificial Intelligence, Frame Analysis, Profit and Loss Frame, Journalism

#### 1. 서론

인간의 두뇌를 모방한 기계를 창조하고자 했던 인류의 열망은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이하 AI) 기술의 탄생으로 결실을 맺었다. AI 기술은 인터넷의 등장 이래 우리 사회를 가장 큰 변혁의 시기로 이끌며 그 영향력을 확장해 오고 있다. 1956년 'AI' 용어가 처음 사용된 이후[1], 약 70여 년에 걸친 발전 과정에서 AI는

점차 대중화되었다. AI가 국내에서 주목을 받은 결정적 계기는 2016년 구글 딥마인드의 알파고(AlphaGo)와 이세돌 9단의 바둑 대국이다. 당시 구글 회장이었던 에릭 슈미트는 대국이 시작되기 전에 “누가 이기든 인류의 승리”라고 언급하며 대중의 혼란을 최소화하려 했으나, 대국 이후 등장한 ‘알파고 쇼크’라는 표현에서 당시 대중이 AI 기술에 대해 느꼈던 두려움과 경각심을 엿볼 수 있다. 이후 2022년 오픈 AI가 챗GPT 서비스를 공개

\*정회원, 동덕여자대학교 커뮤니케이션콘텐츠전공 (제1저자)

\*\*정회원, 고려대학교 미디어학부 석사과정(교신저자)

접수일: 2024년 8월 26일, 수정완료일: 2024년 9월 25일

게재확정일: 2024년 11월 5일

Received: August 26 2024 / Revised: September 25, 2024

Accepted: November 5, 2024

\*\*Corresponding Author: aass2256@korea.ac.kr

Dept. of Media, Graduate School, Korea Univ, Korea

하면서 AI는 인류의 일상 속에 깊숙이 들어왔다. 챗 GPT는 출시된 지 단 5일 만에 100만 명의 사용자를 확보하였으며, 두 달 만에 약 1억 명의 사용자를 기록하며 급속도로 대중화되고 있다[2].

기술 발전에 대한 오랜 열망이 실현되었지만 역설적으로 AI 규제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논의는 더욱 활발해지고 있다. 미국은 2023년 10월에 ‘안전성·보안성·신뢰성을 갖는 AI의 개발과 활용에 관한 행정명령’에 서명하였고, 유럽의회는 2024년 3월 AI 기술 혁신을 촉진하는 동시에 안전과 기본권 준수를 보장하는 기본법을 승인하였다[3]. 이러한 규제적 움직임은 AI 기술이 인류에게 다양한 이익을 제공하는 한편, 사회문화 규범이나 윤리적 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에 기인한다[4]. AI 연구자뿐만 아니라 미래학자, 인류학자, 저명한 정치인들이 AI가 초래할 미래의 위험성에 대해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데, 일례로 영국의 세계적인 물리학자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 박사와 MIT 및 UCB 대학 교수 네 명은 영국 인디펜던트지 기고문을 통해 인공지능이 인류 최대 성과이자 재앙이 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5].

AI 기술의 발전과 활용에 대한 상반된 견해가 공존하는 가운데, 이를 주요 의제로 다루는 국내 언론 보도 경향을 분석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대중의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와 인식에 있어 미디어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6], 관련 AI와 관련된 언론 보도는 연구 대상으로서 충분한 학술적 가치를 지닌다. 본 연구는 국내 언론이 AI 관련 사안을 대중에게 전달할 때 사용한 보도 프레임을 보도 내용프레임과 보도 방향프레임 등 두 가지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특히, 기사 제목과 본문의 독립성이 강해지는 최근 경향을 고려하여, 기사 제목과 본문을 구분하였다. 이를 통해 AI 관련 보도에서 나타나는 언론의 관행과 현 모습을 진단하고 국내 언론이 저널리즘 가치 증진을 위해 지향해야 할 보도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 II. 이론적 논의

### 1. 언론 보도 프레임(보도 방향 프레임, 보도 내용 프레임) 관련 선행연구 고찰

언론은 현실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사안 등을 수용자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일련의 보도 프레임(News

Frame)을 활용한다. ‘언론이 현실을 재구성하는 과정’ 혹은 ‘현실을 특정한 방향 혹은 관점으로 의미화하는 과정’을 뜻하는 보도 프레임은[7][8] 사안에 대한 수용자의 인식과 평가와 여론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9]. 즉 언론이 특정 사안을 다룰 때 어떤 부분을 집중적으로 선택하고 강조해서 보도하는지, 혹은 반대로 어떤 부분을 배제하고 축소해서 보도하는지에 따라[10] 사안에 대한 수용자 인식과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관련하여 환경 보도의 보도 프레임과 주요 행위자를 분석한 선행연구에 의하면[11], 국내 환경 보도에서 해결/보호 프레임이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반면 책임 프레임이 가장 적게 활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자는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언론이 ‘환경과 관련된 이해관계집단이 어떻게 환경 책임을 인식하고 수용해야 하는지’를 드물게 다루므로써, 환경 오염의 책임에 대한 의견 교환의 중요성이 소멸되는 상징적 소멸(Symbolic Annihilation) 현상을 우려한 바 있다[11].

보도 프레임은 크게 보도 방향 프레임과 보도 내용 프레임으로 구분된다. 먼저 보도 방향 프레임은 긍정 프레임, 부정 프레임, 중립 프레임으로 분류되며 언론이 사안을 다루는 태도 혹은 방향성으로 정의된다[12][13]. 말그대로 긍정 프레임은 특정 사안에 대한 긍정적인 가치판단이 포함된 경우를, 부정 프레임은 부정적 가치판단이 포함된 경우를 의미한다. 중립 프레임은 긍정 혹은 부정의 논조가 지배적이지 않고 유사한 경우 혹은 어떠한 논조도 두드러지지 않는 경우를 뜻한다. 보도 방향 프레임을 중심으로 사스, 신종플루, 에볼라바이러스병, 메르스, 코로나19 등 감염병이 발생한 초기에 언론이 활용한 보도 프레임을 분석한 진명지와 박경숙(2022)에 따르면[12], 대부분의 보도(87.4%)가 중립적 프레임을 활용하였고 뒤이어 부정적 프레임(11.4%)과 긍정적 프레임(1.3%)의 순으로 나타났다. 위 연구자들은 중립적 프레임이 주로 활용되었다고 해서 어느 편에도 치우치지 않은 객관적인 보도라고 해석하기엔 어려움이 따르며 오히려 국가적 위기상황에서는 언론이 분명한 목소리를 내고 특히 정부 대응의 미흡한 부분들을 짚어줄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였다. 한편 보도 방향 프레임의 긍정 프레임과 부정 프레임은 각각 이익 프레임과 손실 프레임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코로나19 기사의 이익-손실 프레임에 따른 개인의 예방행동 차이를 분석한 김효정(2021)의 연구결과, 완치자 수를 강조한 이

익 프레임에 접한 수용자에 비해 사망자 수를 강조한 손실 프레임에 접한 수용자들이 더 높은 두려움 반응을 보였다[14]. 보도 방향 프레임 분석한 선행연구에서 긍정 프레임은 이익 프레임과 부정 프레임은 손실 프레임과 유사한 맥락에서 해석, 활용되고 있다.

다음으로 내용적 프레임 즉 보도 내용과 관련된 프레임을 분석하기 위한 대표적인 틀은 세멧코와 발켄버그(Semetko & Valkenburg, 1999)가 제시하였다[15][16]. 연구자들은 내용 프레임을 인간적 흥미 프레임, 경제 프레임, 책임 프레임, 갈등 프레임 등 네 가지로 구분해서 적용해오다 이후 도덕성 프레임을 추가하였다[16]. 내용 프레임의 구분은 뉴스 보도의 소재에 따라 달라지는데 가령 세멧코와 발켄버그가 제시한 다섯 가지 프레임 외에도 정책 프레임, 사회영향 프레임, 설득 프레임, 공포 프레임, 예방 프레임이 추가되기도 하고[8], 진단/원인 프레임과 해결/보호프레임 프레임이 추가되기도 한다[11].

이 연구는 선행연구 고찰을 바탕으로 뉴스 보도 프레임을 '보도 방향 프레임'과 '보도 내용 프레임'으로 구분하고 각 프레임이 AI에 대한 언론 보도에서 어떤 비중으로 활용되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연구문제1을 수립하였다. 또한 보도 내용 프레임에 따른 보도 방향 프레임 비중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연구문제2를 수립하였다.

**연구문제1. AI 관련 뉴스기사의 보도 프레임(보도 방향 프레임, 보도 내용 프레임)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연구문제1-1. AI 관련 뉴스기사에서 뉴스 보도 방향 프레임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연구문제1-1. AI 관련 뉴스기사에서 뉴스 보도 내용 프레임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연구문제2. AI 관련 뉴스기사에서 뉴스 보도 내용 프레임에 따른 뉴스 보도 방향 프레임은 어떤 경향성을 보이는가?**

2. 시기별 언론 보도 프레임 변화에 관한 선행연구 고찰

보도 프레임의 활용 유무 및 빈도는 언론이 해당 이슈를 보도하기 시작한 초기와 사안이 마무리되는 후기, 즉 보도 시기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져 왔다

[17][18]. 가령 시기별 국내 재난 주관방송사의 지카바 이러스 관련 보도의 프레임을 분석한 선행연구에 의하면[17], 보도 초기와 중기에는 '확진/소두증 발생 프레임'과 '위험성/불안 프레임'이 많이 활용되었고, 보도 후기에는 '위기/재난 프레임'이 주로 활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하여 연구자는 재난 발생 후기에는 재난 관련 구체적인 정보가 제공되기 보다는 바이러스 감염자 수를 나열하는 보도가 주를 이뤘다고 비판하였다.

또한 세월호 참사에 대한 시기별 뉴스 프레임을 분석한 선행연구에 따르면[18], 세월호 참사 보도 기간은 사고 중점 보도 단계, 책임 공방 분석 단계, 정치적 담론화 단계로 구분되는데, 이중 정치적 담론화 단계시기에서 보수 언론사와 진보 언론사가 활용한 보도 프레임에 큰 차이가 발견되었다. 구체적으로 조선일보는 대립과 갈등 프레임을 높은 비율로 활용한 반면 한겨레신문은 조선일보와 달리 비난 프레임이 대립과 갈등 프레임 보다 많이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자는 이와 같은 분석결과를 통해 한겨레신문이 정치적 담론화 시기에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여야의 대립과 갈등을 다루기 보다는 상황의 진척을 촉구하는 비판적인 기사를 많이 보도한 것으로 해석하였다.

이처럼 보도 프레임은 보도 시기에 따라 혹은 사건·사고가 발생한 시기, 사안이 등장한 시기에 따라 활용 빈도가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연구는 AI 관련 뉴스 기사가 보도된 시기에 따른 언론 보도 프레임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연구문제3을 수립하였다. 구체적으로 테슬라 CEO 일론머스크(Elon Musk)를 포함한 저명 경영인과 정치인, AI 연구자, 미래학자, 인류학자들이 AI가 초래할 위험성에 대해 공개적으로 우려의 목소리를 제기하며 AI 기술 개발을 중단하라고 촉구한 2023년 3월 29일을 기준으로 보도 전기와 후기를 구분하고 시기별 뉴스 보도 프레임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연구문제3. 보도 시기에 따른 AI 관련 뉴스기사의 보도 프레임은 어떤 경향성을 보이는가?**

### III. 연구방법

1. 표본 추출 및 코딩 방법

한국언론진흥재단의 기사 검색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인 빅카인즈(www.bigkinds.or.kr)를 활용하여 국내 언

론사가 보도한 AI 관련 기사를 수집하였다[19]. 2022년 11월 30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 경향신문, 국민일보, 내일신문, 동아일보, 문화일보, 서울신문, 세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등 11개 전국일간지가 보도한 기사 중 제목에 AI가 포함된 기사 1,157건을 수집하였다. 주기성을 고려하여 매 3번째 기사를 선택해 표본으로 추출하는 체계적 표집 방법을 활용하였으며, 이중 동일한 기사가 반복 보도되었거나 기사 본문을 열람할 수 없는 48건을 제외한 총 338건의 기사를 분석하였다.

분석유목은 선행연구의 유목을 참고하되 실제 분석 과정에서 유목을 수정하여 귀납적으로 재구성하였다. SPSS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빈도분석, 교차분석을 시행하였으며, 기대빈도가 5 미만인 셀의 비율이 20%를 넘는 경우는 몬테카를로(Monte Carlo) 분석을 통해 유의확률을 계산한 후 명시하였다. 두 명의 코더가 전체 기사의 약10%에 해당하는 40건의 기사를 공통적으로 분석한 후 일치하지 않는 응답이 발견된 경우 토의를 거쳐 코딩 기준을 일치시키는 과정을 진행하였다. 코더 간 신뢰도는 홀스티의 공식( $2M/(N1+N2)$ )을 적용하여 확보하였다[20].

## 2. 분석 유목

이 연구는 AI 관련 뉴스 기사를 기사 제목과 본문으로 구분하고 기사 제목과 본문의 보도 방향, 기사 제목과 본문의 보도 프레임을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기사 제목과 본문을 분리한 이유는 최근 기사 제목이 단순히 기사의 본문을 요약하는 기능을 넘어 독립적 성격과 영향력을 갖고 새롭게 생산되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이다 [21]. 보도방향은 선행연구[12][14]를 참고해 3개 유목(①긍정/이익, ②부정/손실, ③중립/나타나지않음)으로 구분하였다. 다음으로 보도 프레임(frame)은 언론이 수용자에게 현안을 전달할 때 사용하는 틀[22]로 어떤 프레임을 활용하느냐에 따라 수용자의 인식이 달라진다 [23]. 보도프레임의 유목은 수집된 기사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귀납적으로 구성하였는데 일차적으로 연구자들이 기사를 읽으면서 기사가 다루고 있는 주요 내용들 한 문장으로 기술하였고 이후 문장들을 유형화하여 최종적으로 7개 유목(①생성형 AI 소개, ②경제/산업적 영향, ③사회/문화/교육 영향, ④법/제도/정책, ⑤인간흥미/갈등, ⑥기타)으로 구성하였다.

## IV. 분석 결과

### 1. AI 관련 언론 보도의 양상

AI에 대한 언론의 보도 내용 프레임과 보도 방향 프레임의 양상을 살펴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시행하였다.

#### 1) 보도 내용 프레임

언론이 AI 관련 사안을 보도할 때 어떤 내용에 가장 중점을 두는지를 의미하는 보도 내용 프레임을 분석한 결과, 표 1과 같이 기사 제목과 본문 모두 경제/산업적 영향 프레임이 각각 163건(67.9%), 179건(52%)로 가장 많이 활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사 제목의 경우 인간 흥미 프레임이 48건(14.2%)로 뒤를 이었고, 법/제도/정책이 47건(13.9%), 사회/문화/교육적 영향이 41건(12.1%)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기사 본문의 경우 경제/산업적 영향 프레임에 이어 법/제도/정책 프레임이 60건(17.8%)으로 뒤를 이었고 사회/문화/교육 영향 프레임이 45건(13.3%), 갈등 프레임 21건(6.2%), 인간 흥미 프레임 20건(5.9%)의 순으로 분석되었다.

표 1. 보도 내용 프레임

Table 1. News Content Frame

유목	제목	본문
생성형 AI 소개	13 (3.8)	7 (2.1)
경제/산업적 영향	163 (48.2)	179 (53.0)
사회/문화/교육 영향	41 (12.1)	45 (13.3)
법/제도/정책	47 (13.9)	60 (17.8)
인간흥미/갈등	69(20.4)	41(12.1)
기타	5 (1.5)	6 (1.8)
합	338(100)	

#### 2) 보도 방향 프레임

언론의 보도 방향을 살펴본 결과, 표 2와 같이 기사 제목과 본문 모두 중립적 입장에서 기술된 기사가 대부분이었다.

표 2. 보도 방향 프레임

Table 2. News Reporting Directions Frame

유목	제목	본문
긍정/이익	14 (4.1)	5 (1.5)
부정/손실	37 (10.9)	25 (7.4)
중립	287 (84.0)	308 (91.1)
합	338 (100)	

기사 제목의 경우 중립적 기사가 287건(84%)이었고 본문은 308건(91.1%)였다. 긍정/이익의 관점에서 쓰여

진 기사 제목은 14건(4.1%), 본문은 5건(1.5%)이었고 부정/손실의 관점에서 쓰여진 기사 제목은 37건(10.9%), 본문은 25건(7.45%)으로 나타났다. 기사 제목과 본문 모두 긍정/이익 프레임에 비해 부정/손실 프레임을 활용한 경우가 많았다. 본문에 비해 기사 제목이 긍정/이익과 부정/손실과 같은 감정 프레임을 상대적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2. 보도 내용프레임과 보도 방향프레임 교차분석 결과

보도 내용 프레임에 따른 보도 방향 프레임을 교차 분석하기 전에 연구자는 보도 방향 프레임의 유목을 6개에서 5개로 축소하는 재코딩 과정을 거쳤다. 구체적으로 생성형 AI 소개 프레임과 기타 프레임 유목을 합쳐 생성AI소개/기타 프레임으로 병합하였다. 이는 중요도가 낮은 유목 간 통합으로 범주를 축소함으로써 통계적 유의성을 저해하는 요소를 없애고, 분석 결과를 간결하게 나타내 가독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표 3. 기사제목의 보도 내용 프레임에 따른 보도 방향 교차분석

Table 3. Cross-analysis of News Reporting Directions Frame Based on the News Content Frames of Headlines

제목 보도 내용 프레임	제목 보도 방향 프레임			
	긍정 /이익	부정 /손실	중립	전체
	빈도(%)	빈도(%)	빈도(%)	빈도(%)
생성AI소개 /기타	0(0)	0(0)	18(100)	18(100)
경제/산업적 영향	7(4.3)	7(4.3)	149(91.4)	163(100)
사회/문화 /교육 영향	2(4.9)	17(41.5)	22(53.7)	41(100)
법/제도/정책	2(4.3)	6(12.8)	39(83)	47(100)
인간흥미 /갈등	3(4.3)	7(10.1)	59(85.5)	69(100)
전체	14(4.1)	37(10.9)	287(84.9)	338(100)

$\chi^2=50.472$ ,  $df=8$ ,  $p<.001$ , Monte Carlo  $p<.001$ , Cramer's  $V=.27$

기사 제목의 보도 내용 프레임에 따른 보도 방향 프레임을 교차분석한 결과, 표 3과 같이 내용 프레임×방향 프레임의 차이는 유의미한 수준으로 분석되었다( $\chi^2=50.472$ ,  $df=8$ ,  $p<.001$ ). 모든 보도 내용 프레임이 중립 프레임을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생성AI소개 프레임, 경제/산업적영향 프레임은 긍

정/이익 혹은 부정/손실 프레임의 활용이 매우 적었다. 사회/문화/교육영향 프레임이 부정/손실 프레임을 많이 활용하였고(41.5%), 법/제도/정책 프레임(12.8%)과 인간 흥미/갈등 프레임(10.1%)에서도 상대적으로 부정/손실 프레임이 많이 활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기사본문의 보도 내용 프레임에 따른 보도 방향 교차분석

Table 4. Cross-analysis of News Reporting Directions Frame Based on the News Content Frames of Article

본문 보도 내용 프레임	본문 보도 방향 프레임			
	긍정 /이익	부정 /손실	중립	전체
	빈도(%)	빈도(%)	빈도(%)	빈도(%)
생성AI소개 /기타	0(0)	0(0)	13(100)	13(100)
경제/산업적 영향	4(2.2)	3(1.7)	172(96.1)	179(100)
사회/문화 /교육 영향	0(0)	18(40)	27(60)	45(100)
법/제도/정책	1(1.7)	4(6.7)	55(91.7)	60(100)
인간흥미 /갈등	0(0)	0(0)	41(100)	41(100)
전체	5(1.5)	25(7.4)	308(91.1)	338(100)

$\chi^2=84.535$ ,  $df=8$ ,  $p<.001$ , Monte Carlo  $p<.001$ , Cramer's  $V=.35$

다음으로 기사 본문의 보도 내용 프레임에 따른 보도 방향 프레임을 교차분석한 결과, 표 4와 같이 내용 프레임×방향 프레임의 차이는 유의미한 수준으로 분석되었다( $\chi^2=84.535$ ,  $df=8$ ,  $p<.001$ ). 기사 제목과 마찬가지로 기사 본문 역시 대부분의 보도 내용 프레임이 중립 프레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었다. 생성AI소개 프레임과 인간흥미/갈등 프레임, 경제/산업적영향 프레임은 대부분 중립 프레임을 활용하였다. 반면 기사 제목에서와 동일하게, 사회/문화/교육영향 프레임(40%)과 법/제도/정책 프레임(6.7%)이 상대적으로 부정/손실 프레임을 많이 활용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 3. 보도 시기별 AI 보도 내용프레임 교차분석 결과

보도 시기에 따른 기사 제목의 보도 내용 프레임을 교차분석한 결과, 표 5와 같이 보도 시기×제목 보도 내용 프레임의 차이는 유의미한 수준으로 분석되었다( $\chi^2=10.437$ ,  $df=4$ ,  $p<.05$ ). 구체적으로 보도 전기에는 경제/산업적영향 프레임(51.6%)이 가장 많았고, 사회/문화/교육영향 프레임과 인간흥미/갈등 프레임 14.3%로 뒤

를 이었다. 보도 후기 역시 경제/산업적영향 프레임(46.2%)이 가장 많았지만 인간흥미/갈등 프레임(24.1%)과 법/제도/정책 프레임(15.6%), 사회문화/교육영향 프레임(10.8%)이 두루 활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보도시기별 기사제목의 보도 내용 프레임 교차분석  
Table 5. Cross-analysis of Content Frames in News  
Headline by Reporting Periods

시기	제목 보도 내용 프레임					
	생성 AI 소개/기타	경제/산업적 영향	사회/문화/교육 영향	법/제도/정책	인간 흥미/갈등	전체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전기	11 (8.7)	65 (51.6)	18 (14.3)	14 (11.1)	18 (14.3)	126 (100)
후기	7 (3.3)	98 (46.2)	23 (10.8)	33 (15.6)	51 (24.1)	212 (100)
전체	18 (5.3)	163 (48.2)	41 (12.1)	47 (13.9)	69 (20.4)	338 (100)

$\chi^2=10.437$ ,  $df=4$ ,  $p<.05$ , Monte Carlo  $p<.015$  Cramer's  $V=.18$

다음으로 보도 시기에 따른 기사 본문의 보도 내용 프레임을 교차분석한 결과, 표 6과 같이 보도 시기×본문 보도 내용 프레임의 차이는 유의미한 수준으로 분석되었다( $\chi^2=8.277$ ,  $df=4$ ,  $p<.01$ ).

표 6. 보도시기별 기사본문의 보도 내용 프레임 교차분석  
Table 6. Cross-analysis of Content Frames in News Article  
by Reporting Periods

시기	본문 보도 내용 프레임					
	생성 AI 소개/기타	경제/산업적 영향	사회/문화/교육 영향	법/제도/정책	인간 흥미/갈등	전체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전기	6 (4.8)	72 (57.1)	21 (16.7)	18 (14.3)	9 (7.1)	126 (100)
후기	7 (3.3)	107 (50.5)	24 (11.3)	42 (19.8)	32 (15.1)	212 (100)
전체	13 (3.8)	179 (53)	45 (13.3)	60 (17.8)	41 (12.1)	339 (100)

$\chi^2=8.277$ ,  $df=4$ ,  $p<.01$ , Monte Carlo  $p<.01$ , Cramer's  $V=.16$

보도 전기(57.1%)와 후기(50.5%) 모두 경제/산업적 영향 프레임이 가장 많았다. 전기의 경우 사회/문화/교육영향 프레임(16.7%), 법/제도/정책 프레임(14.3%), 인간흥미/갈등 프레임(7.1%)의 순으로 많이 활용된 반면,

후기에는 법/제도/정책 프레임(19.8%), 인간흥미/갈등 프레임(15.1%), 사회/문화/교육영향 프레임(50.5%)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보도 시기에 따른 기사 제목과 본문의 보도 방향 프레임 교차분석 결과는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 V. 결론 및 논의

최신의 혁신 기술 중 하나인 AI가 전세계 다양한 영역에서 주목받고 있다. 새로운 기술의 등장과 이로 인한 사회 문화적 변화는 항상 언론의 의제(media agenda)로 작동해왔다. 더욱이 AI는 경제, 금융, 의료, 교육, 엔터테인먼트 등 일상생활 전반의 영역에 매우 빠른 속도로 도입되고 있기 때문에 언론 의제이자 대중 의제(public agenda)로서 사회적 논의의 중심에 서있다. 이 연구는 언론이 AI 관련 사안을 대중에게 전달할 때 활용한 보도 프레임을 보도 내용 프레임과 보도 방향 프레임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 기사 본문뿐만 아니라 기사 제목의 보도 프레임도 함께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기사 제목과 본문의 내용 프레임은 경제/산업적 영향 프레임이 가장 많이 활용되었다. AI가 광범위한 산업 분야에 적용되어 혁신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AI 기술 도입으로 인한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비용 절감,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창출,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소멸, 산업 구조 변화 등에 관한 기사를 적극적으로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기사 본문의 내용은 경제/산업적 영향 프레임 다음으로 법/제도/정책 프레임이 많이 활용된 반면, 기사 제목은 인간흥미/갈등 프레임이 경제/산업적 영향 프레임의 뒤를 이었다. 흥미로운 내용과 둘 이상의 주체 간 갈등을 다룬 인간흥미/갈등 프레임이 많이 활용된 것은 언론이 상업적인 목적으로 기사와 본문의 일치 여부를 떠나 흥미성, 오락성, 선정성이 가미된 기사 제목을 통해 대중의 관심을 끌고 온라인 상에서 클릭을 유도한다는 선행 연구들의 주장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21][24][25]. 이준웅 외(2007) 연구자는 국내 대표 일간지의 기사 제목 중에서 약 30% 이상이 따옴표가 삽입된 제목이었고 이중 약60%는 제목에 직접 인용된 내용이 기사 본문에는 언급되지 않는다고 지적한 바 있다[26]. 기사의 과잉 공급과 한정된 시간으로 온라인 상에서 기사를 클릭하

지 않고 제목만 보고 뉴스를 소비하는 대중의 미디어 이용 행태에 따르는 것도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차 하락하고 있는 저널리즘의 가치 증진을 위해 기사의 제목이 “그 아래에 나올 내용이나 글의 본질을 보여 주는 문구”로서의 역할[21]을 다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같은 맥락에서 기사 제목과 본문의 보도 방향 프레임 분석한 결과, 긍정/이익 프레임, 부정/손실 프레임 모두 본문보다 기사 제목에서 더 많이 활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감정적이고 자극적인 기사 제목을 통해 미디어 이용자의 눈에 띄려는 언론의 그릇된 노력으로 해석된다.

또한 보도 내용 프레임에 따른 보도 방향 프레임의 차이를 교차분석으로 살펴본 결과, 기사 제목과 본문 모두 사회/문화/교육 영향 프레임이과 법/제도/정책 프레임(12.8%)에서 상대적으로 부정/손실 프레임이 많이 활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언론이 AI와 관련된 사안을 대중에게 전달할 때 AI 기술이 사회적, 문화적, 교육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며 이에 대한 대응으로 적절한 법, 제도, 정책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기사가 많았다. 특히 보도 시기별 AI 보도 내용 프레임을 교차분석한 결과 제목과 본문 모두 보도 전기에는 사회/문화/교육적 영향에 주목한 기사가 후기보다 많았으며, 보도 후기에는 법/제도/정책적 프레임이 전기보다 많았다. 이러한 결과는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와 AI 연구자, 미래학자, 인류학자, 유명 정치인들이 공개적으로 AI가 초래할 미래 위험성에 대해 입장을 표명한 이후에 여러 우려에 대한 안전 장치로서 법, 제도, 정책적 대안이 필요하다는 기사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미래 지향적인 기술 비전과 실행력을 갖춘 인물로 글로벌 영향력을 보유한 일론 머스크와 일부 유명인, 전문가의 우려의 목소리를 언론이 주의 깊게 다룰 필요가 있다. 다만 언론이 이러한 주장을 그대로 인용하여 보도하기 보다는 일부 전문가의 주장에 대한 신뢰성을 다각도로 검증하고, 앞으로 인류가 겪을 새로운 변화에 대해 심층적으로 다루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이 연구는 언론이 최신의 이머징 기술인 AI를 대중에게 전달하는 방식을 보도 내용 프레임과 보도 방향 프레임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인류의 일상을 혁신적으로 변화시킬 신기술이 등장하였을 때 언론은 기술

의 개념과 활용법에 대한 소개 그리고 새로운 기술이 경제적, 사회·문화적, 교육적 차원에서 인류에게 미칠 것으로 기대되는 영향과 우려, 예견되는 우려에 대응하고 신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필요한 법, 제도적 대응 방안, 둘 이상의 주체 간 갈등과 해결 방법에 대해 고루 전달할 필요가 있다. 또 다양한 사안을 다루는 방식은 이익과 손실, 긍정과 부정의 프레임의 적절한 사용을 통해 명확하게 전달될 필요가 있다. 중립적인 프레임을 활용한 보도라고 해서 객관적인 보도라고 해석되긴 어려우며 상황에 따라 언론이 분명한 태도와 입장에서 사안을 전달할 필요가 있다는 선행연구자의 주장[12]과 같은 맥락에서 향후 언론 기사에 적용된 보도 내용 프레임에 따른 보도 방향 프레임이 보다 다채로워지길 기대한다.

## References

- [1] Y. Kim, “Global History Perspectives in a Artificial Intelligence Era,” *Global Studeis Education*, Vol. 12, No. 4, pp. 139-156, 2020
- [2] J.S. Koh, “Trends, Evaluation, and Policy Implications of Debates on AI governance at the International Level,” *Foreign Relations*, No. 150, pp. 87-110, 2024.
- [3] B.D. Yoo, “Another Deepfake Sexual Crime Strikes University Campuses: The Accelerating Threat of AI,” *Asia Economy*, August 2024. <https://view.asiae.co.kr/article/2024082015061995178>
- [4] C. Jeong and H. Lee, “Investigating the Necessity and Tasks of AI ethics education in Moral Education,” *The SNU Journal of Education Research*, Vol. 31, No. 1, pp. 55-82. 2022.
- [5] H.J. Yoon, “An AI Voice That Sounds Just Like Mine: Will It Revolutionize Human Civilization?” Gyeongbuk Mael. August 2024. [https://www.kbmaeil.com/news/articleView.html?id\\_xno=1007267](https://www.kbmaeil.com/news/articleView.html?id_xno=1007267)
- [6] H.R. SONG and H.M. Cho, “Introduction of Trends in Reporting Science Technology Risk by Korean Media-Focusing on Analysis of Newspaper Coverage of Nanotechnology in Major Daily Newspapers,” *Crisisonomy*, Vol. 9, No. 11, pp. 1-18. 2013.
- [7] G. Tuchman, “*Making news: A study in the social construction of reality*,” New York: Free Press. 1978.
- [8] Y. Ting, and L. Jing, “Framing city image: A

- content analysis of Chinese city image construction on Korean press," *International Journal of Advanced Culture Technology*, Vol. 12, No. 1, pp. 158-168, 2024.
- [9] D. Kim, "New Direction for News Reporting of Social Conflicts," *Korean Journal of Journalism & Communication Studies*, Vol. 45, No. 1, pp. 5-32. 2000.
- [10] R. Entman, "*Framing: Toward clarification of a fractured paradigm. McQuail's reader in mass communication theory*," 1993.
- [11] M. Choi, S. Park, and S. Lee, "Analysis on Environment Report of News Media : Focusing on Environment Area, Reporting Frame, Main actor,"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 23, No. 3, pp. 522-532. 2023.
- [12] Mi Jin and K.S. Park, "A Study on Press Coverage in the Early Stages of Infectious Diseases : SARS, H1N1, EVD, MERS, COVID-19," *Korea Health Communication Research*, Vol. 21, No. 1, pp. 57-120. 2022.
- [13] K.S. Cho and K.T. Hahn, "A Study on Fairness of Korean Dailies: A Frame Analysis on the 'Media Law Amendment' coverage," *Journal of Social Science*, Vol. 36, No. 3, pp. 133-165. 2010.
- [14] H.J. Kim, "The Impact of Gain- Versus Loss-Framed News on Prevention Behaviors during the COVID-19 Outbreak: Focusing on the Moderating Effects of Response Efficacy Information and Political Orientation," *Communication And Information Studies*, Vol. 58, No. 4, pp. 49-88. 2021.
- [15] H.A. Semetko and P.M. Valkenburg, "Framing European politics: A content analysis of press and television news," *Journal of Communication*, Vol. 50, No. 2, pp. 93-109. 2000.
- [16] J. Park, Y. Oh, S. Shim, S. Lee, and J. Cho, "Media Framing and Public Relations Practitioner's Perceptions about ESG Media Coverage," *Journal of Public Relations*, Vol. 26, No. 2, pp. 117-149. 2022.
- [17] M. Choi and H. Chung, "Analysis of Disaster News Frame of Host Broadcaster for Disaster Broadcasting Services : Focusing on Zika Virus News,"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 18, No. 7, pp. 609-619. 2018.
- [18] T. Kim and C.J. Chung, "The Comparative Frame Study on the Disaster News Report of the Sewol Ferry Incident," *Korean Journal of Social Science*, Vol. 27, No. 1, pp. 199-224, 2016.
- 10.16881/jss.2016.01.27.1.199
- [19] H. Ban, "Analysis of Korean News Report : Focusing on N. Korea-Russia Summit,"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Vol. 5, No. 2, pp. 117-122, 2019.
- [20] O.R. Holsti, "*Content Analysis for the Social Sciences and Humanities, Reading*," MA: Addison-Wesley, 1969.
- [21] J.H. Lee, "Implications and Theories of Headline Journalism: Focusing on Headlines of Newspapers and Portal Sites," *Region and Communication*, Vol. 19, No. 1, pp. 249-280. 2015.
- [22] S. Iyengar and A. Simon, "*News coverage of the Gulf crisis and public opinion*. In W. L. Bennett & D. L. Paletz (Eds.), *Taken by storm: The media, public opinion and U.S. foreign policy in Gulf War*(pp. 167~185),"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4.
- [23] T. Gitlin, "*The whole world is watching*," London: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0.
- [24] S.J. Kim, "The utilization reality of hooking news titles in portal news service - Focused on major daily newspapers in naver newscast," *Journal of Digital Design*. Vol. 10, No. 4, pp. 283-293. 2010.
- [25] Y. Choi, C.S. Park, and M.K. Ko "Study Examines the Headlines in the Newscast Service of Naver," *Kroean Journal of Communication Studies*, Vol. 18, No. 1, pp. 115-140. 2010.
- [26] J.W. Rhe, S.M. Yang, K.C. Kim, and H.J. Song, "Direct Quotations in Newspaper Headlines in the Coverage of the Local Election on May 31, 2006," *Korean Journal of Journalism & Communication Studies*, Vol. 51, No. 3, pp. 64-90. 2007.